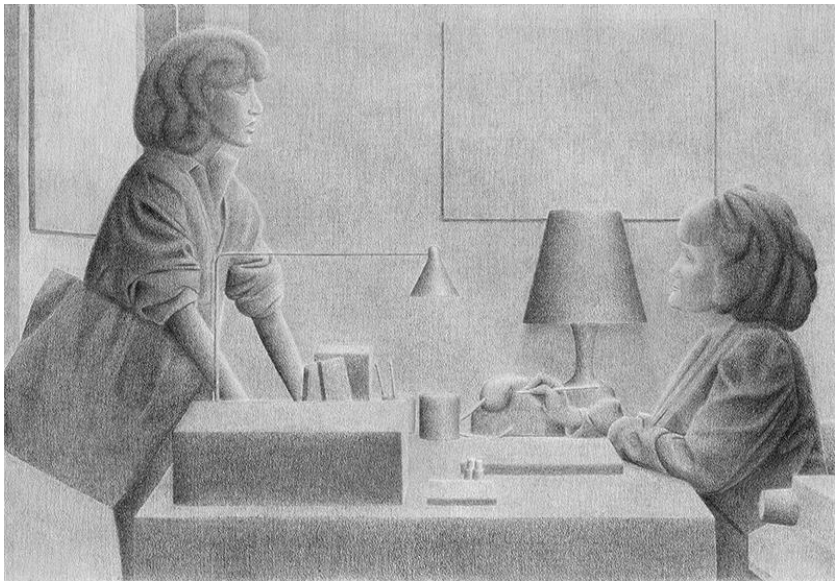
[보도자료]

김덕훈 개인전 <spectre(스펙터)>



general affair(서무실), 종이에 흑연, 52.5x74.8cm, 2019

○ **관람 안내**

참 여 작 가: **김덕훈**

전 시 제 목: **spectre(스펙터)**

일　　정: **2019년 9월 20일(금) – 2019년 10월 19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 (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 **전시 개요**

에이라운지(A-Lounge)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김덕훈 개인전 <spectre(스펙터)>를 진행한다. 작가는 1990년 대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를 보면서 기억 속에서 스쳐지나간 장면들을 화면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신작 11점을 선보인다.

김덕훈은 학부에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디자인에서 드로잉으로 다시 전향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작가이다. 그의 드로잉은 연필의 물성이 드러날 정도의 날카로운 질감을 특징으로 하며, 지금까지 작업이 이러한 물성을 드러내는 버드나무와 파도 등 풍경 중심이었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인물과 사건 중심의 영화 속에서 발견한 장면을 담아냈다.

이러한 장면들은 '유령(spectre)'이라는 전시명을 통해 소개된다. '유령'은 실재하지만 잊혀졌기에, 자신의 흔적을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유지시키고자 한다. 김덕훈의 작품 속에 드러난 인물들은 날카로워서 위태로워 보이는 연필선의 질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육중한 석고상 혹은 부조같이 느껴지며, 이러한 견고함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유지시킨다. 작가는 기억에서 스쳐지나가며 남지 못하는 장면들을 선택하여, 연필을 통해 육중한 형태로 화폭에 담아내어 견고함과 위태로움의 이중성을 배가시킨다. 마치 '유령'처럼 실재했으나 잊혀진 장면들 속의 인물과 사건은 위태로우며 견고한 형태로 김덕훈의 작품 속에 잊혀지지 못하고 남아있다.

김덕훈의 작품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견고함과 위태로움의 이중성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 에이라운지(A-Lounge)가 가을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김덕훈 개인전 <spectre(스펙터)>에서는 날카로운 연필의 질감을 통해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삶의 이중성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작품에서 1990년 대 영화 속 한 장면을 추적해보는 재미 또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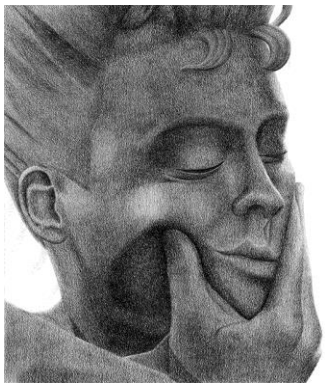
○ **작가 소개**

김덕훈

김덕훈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연필 드로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개인전 <Weeping Willow(수양버들)> (커먼센터, 서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8년 개인전 <액체는 고체를 꿈꾸는가> (아트스페이스오, 서울) 전을 개최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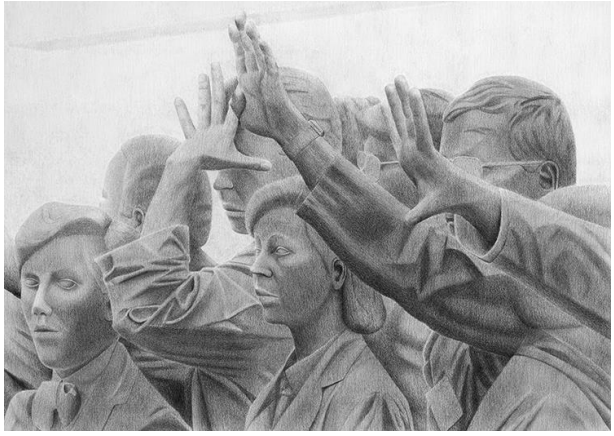
김덕훈

Distorted(일그러진)

2019

종이에 흑연

52.5x37.4 cm



김덕훈

making money(거래)

2019

종이에 흑연

74.8x10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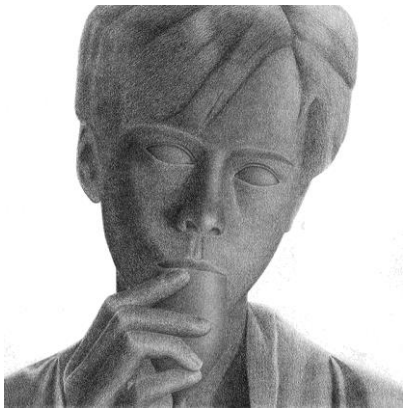
김덕훈

office hours(근무시간)

2019

종이에 흑연

74.8x105.1cm



김덕훈

Gaze(응시)

2019

종이에 흑연

52.5x37.4 cm